

佛法의 오묘한 진리를 선율에...



◇해의 유희파 출신으로 구성된 클래식 불교 현악 4중주단 '로터스'가 창단된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훈, 유진섭, 체반타티아나, 홍지영씨.

미국, 독일, 러시아 등 해외의 유희파 음악 재원들이 불교포교를 위해 '로터스 불교 현악4중주단(Lotus String Quartet)'을 창단한다.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연꽃 불교현악4중주단'이다. 이들의 창단 소식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연주자 개개인의 화려한 이력들이다.

창단에 실질적 역할을 한 홍지영씨(33·첼로)는 줄리아드 음대를 나와 샌퍼드 심포니단원, 줄리아드스쿨 오케스트라 수석, 탕글우드 섬머뮤직페스티벌과 링컨센터 연주를 했으며, 현재는 수원대 강사로 근무한다. 유진섭씨(33·제1바이올린)도 홍지영씨와 예원, 예고동창생으로 서울대 음대를 거쳐 독일 국립만하임대 최고 연주자 과정,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 단원, 코리아심포니 부악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 바로크 합주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유일한 외국인인 체반타티아나(36·비올라)씨는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음대를 나와 러시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다 현재는 국내에서 내셔널 심포니오케스트라에 소속돼 있다. 마지막으로 정재훈씨(36·제1 바이올린)도 미국 줄리아드 음대와 예원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원대에 출강하고 있다.

물론 단원들 모두가 불자는 아니다. 조계사와 성남 정토사를 다니는 골수신자(?) 홍지영씨 말고는 종교가 없거나 다르다. 특히 한국생

12일 동국대 행사서 교가등 연주 첫선

9월중 창단음악회...교구본사 순회공연

할 5년째지만 아직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타티아나는 러시아정교 신자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불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클래식 연주단체의 대다수가 개신교와 천주교라는 점도 이들이 함께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다. 홍지영씨는 '1500년의 유구

한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와 그 음악은 분명 우리정서가 가장 많이 녹아 있다'며 "세계음악을 선도하고 있는 클래식을 통해 불교가 가진 오묘하고 깊은 진리를 담아낸다는 것은 연주자로서 큰 매력을 느끼는 일"이라고 창단 취지를 설명한다. 실제로 이번 창단을 결심하기까

지는 현재 홍보와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신심 단독홍치의 남편 임종욱씨(42·동국대문학연구소 전임 연구원)가 큰 몫을 차지했다. 예비 출범의 일환으로 첫 선을 보이는 12일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 -1000일' 행사에 초청된 것도 홍기삼 동국대 총장과 인연이 있는 임씨가 주선했다. 이날 연주에서도 클래식으로 편곡한 동국대 교가를 비롯해 불교에 큰 영향을 받은 작곡가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뮤직', 찬불가 두 곡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9월중 예정된 창단 기념음악회는 불교 악단답게 조계사 역사문화관 개관식때 연주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협의중이다. '로터스 불교현악4중주단'은 창단기념연주회를 연 후 가장 먼저 전국에 있는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를 돌며 순회연주를 할 생각이다.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선율(禪律)가 특한 불교음악을 클래식화한 편곡으로 대중들에게 선사한다면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클래식 음악 선진국에서 공부한 것들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세계인들에게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불교적 하모니들이 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한번 지켜볼 달라며 굳은 각오로 다시 연습 삼매경에 빠진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옛선비 풍류·자연풍광 '물씬'

박일훈씨 창작국악 7집 '동다송' 출시



◇작곡가 박일훈.

작곡가 겸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실장 박일훈(57·사진)씨의 창작국악 음반 다락(茶樂) 제 7집 '동다송(東茶謠)'이 새로 나왔다.

'다우삼매(茶友三昧)' '차잎소리' 등 자연의 풍광이 물씬 풍기는 기악곡도 좋지만 고즈넉한 삼현육각 반주로 부르는 남창·여창 가곡이 옛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를 되새기게 한다. 통광스님이 초의(草衣)선사 탑비명에서 지은 시에 가락을 얹은 '꼭 다향(噴香)'과 역시 초의선사의 다신전(茶神傳) 가사에 곡을 붙인 '동다



◇다락제7집 '동다송'.

송' 등이 수록돼 있다. '차와 선은 하나(茶禪一如)'라는 초의선사의 사상을 실천하기도 하듯 정악(正樂)의 세계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박일훈의 '동다송'은 차향처럼 은은하고 여유있게 다가온다. 창작 국악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서양음악 작곡법에서 탈피해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정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박일훈씨는 "차갑고 이지적이지만 따스함을 지니고 있는 대금과 단소, 훗의 모나지 않고 풍요로운 속성을 지닌 토부(土部)악기, 명주실 소리의 부드럽고 애잔한 선율이 흐르는 가야금 등이 잘 어울려 있어 편안하게 차(茶)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킷 디자인은 안상수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맡았다.

김주일기자

중국·동남아 불교문화재 전시



◇캄보디아의 석가여래좌상.

가네코 가즈시게씨 기증 특별展 열어

시원한 방랑장치가 돼 있는 박물관에서 문화유산과 만나는 것도 흐릿한 피서법이 아닐까.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일본의 저명 조각가 가네코 가즈시게씨의 기증 특별전은 가네코가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수집한 불교 문화재와 칠기, 토기, 공예품 등의 이색 문화유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지의 불상, 불화, 불경, 칠기, 토기, 목공예품 등이 나와 있다. 이 가운데 16세기 미얀마에서 제작된 대형 건칠 불두와 19세기 경상 등이 눈길을 끈다. 2부에서는 타이 반치앙 유적의 선사토기와 무령왕릉의 문지기와 수를 떠올리게 하는 중국 후한시대의 진묘수가 주목되는 유물들이다. (02)398-5077.

김주일 기자

산사의四季 등 화폭에 해인사 성타스님 초대전



◇성타스님의 '백련의 향기'.

전통과 현대의 기법을 아우르면서 산사의 사계를 화폭에 담은 성타스님(부산 범어사 금강암)의 다섯 번째 초대작품전이 해인사 구광루 1층 특별미술관에서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장보살', '가야산 백운동의 여름', '초발심', '도반', '달마 8폭병풍', '달마서래의' 등 50여점이 선보인다. 그동안 주로 그려왔던 실경산수화를 비롯해 수묵화, 문인화, 달마도 등 지난 전시회보다 종류가 많아졌다. 특히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6개월간 캔버스를 들고 약사암, 운문사, 용천사 등 전국 20여 산사로 만행을 했다. 그때서일까, 스님의 그림에는 사실적이고도 담백한 서정미가 느껴진다.(018)609-8011.

문화소식

승무·한량무·살풀이 공연

국립무용단의 대화가 있는 특별기획 공연 '바리바리 춤춤 디딤새 2003'이 23일까지 국립극장내 별모듬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무용단 소속 단원들이 승무를 비롯해 한량무, 살풀이 등을 선보인다. 공연은 △9·10일 김진영- '살풀이에 숨어 있는 이미지 찾기' △13·14일 박재순- '승무의 장단속에 담겨있는 춤의 내면성' △

16·17일 윤성철- '한량무' △19·20일 서정숙- '태평무' △22·23일 김윤규- '노장춤에 담긴 해학성'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2271-1743.

한국의 禪문화展 열어

한국 불교의 고유문화 가운데 하나인 선(禪)문화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선 문화전' (www.SeonFair.org)이 19일부터 열흘간 대구 밀리오레 백화점 특별 전시장에서 열린다. 요가, 기체조, 단전호흡 등 명상 체험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의식주를 체험할 수 있다. (053)423-3211.

방송 프로그램

05:45 고승열전	서울 FM 101.9 MHz	6월 13:20 시가 있는 첫집
06:25 신형 365일	부산 FM 89.9 MHz	7월 23:45 원각경 강의
11:10 행복스튜디오	광주 FM 89.7 MHz	8월 12:20 정물 스님의 찬불가 교실
황창원입니다	대구 FM 94.5 MHz	9월 19:35 특별법회 자광 스님
14: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지금	전주 FM 96.7 MHz	10월 20:20 설수전의 러빙유
15:05 음악의 마을	대전 FM 100.1 MHz	11월 14:25 특별법문 전광스님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12월 07:40 아 부처님이다

아이 라이트

- 불교방송
 - ▷세계음악여행(10월 23:05) - 남유럽의 항구에서 중앙아시아의 고원까지. 지구촌의 낯선 음악과 친구가 되는 시간 '세계음악여행' 1부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아름다운 상상의 나라를 펼쳐는 <내 마음의 지도>가, 2부에는 행복한 음악 들기의 동반자와 함께 멀고도 가까운 시간의 비밀과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과 음악>이 이어진다.
- 불교텔레비전
 - ▷시가 있는 첫집(6월 13:20) -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이어 페르시아의 수학자이자 시인인 우마르 하이얌의 <루바이아트> 시집에 들어 있는 단막 시 두 편을 소개한다. 그는 근대 페르시아어로 모두 1천편에 달하는 4행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보시나 불사유으로 제작하였습니다.

寫經 金剛般若波羅蜜經 妙法蓮華經 地藏經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도와 성취의 길 **금강경사경** 불사

사경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사경은 기도이며 수행이고 참회이며 복을 짓는 일이며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독송하며 서사(書寫)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강경은 예로부터 사경경전의 제일로 꼽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권합니다.

사십 구제를 모시면서 사경을 하면 왕생의 요격이 됩니다. 사경한 것은 사십 구제달 고인을 위해 불살라 줍니다. 조상님이나 임신중절한 태아의 천도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천도시식하는 날 함께 불살라 영가에게 공양합니다. 자식의 입시나 남편의 승진을 위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감사공양을 올립니다. 소원성취를 위해서도 사경기도를 하거나 병고퇴치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한 것은 불전에 올립니다. 탐이나 법당을 세우거나 새롭게 부처님을 모실 때 사경불사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 사경불사를 올려야 합니다.

문의전화 : (080)662-8522

TEL/(032)662-8522 FAX/(032)662-8524 양지바른곳